



스승 정은순 팔순 기념 깜짝 헌정 음악회

전남대 피아노 전공 '피아스트라' 내일 금호아트홀

정은순 전남대 음악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피아노 교육의 대모로 꼽힌다. 경희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4년부터 조선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정 교수는 1976년 전남대 음악학과로 옮긴 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지역 음악계를 풍성하게 했다.

정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전남대 출신 제자들은 '피아스트라'(회장 박수미 광주대 겸임교수)를 결성, 매년 한차례씩 정기연주회를 열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진행하고 있다.

13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며 회원들은 조금 색다른 무대를 마련했다. 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올해 팔순을 맞은 스승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다. 스승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이번 공연에는 정지윤·송지영·오자형·배소현·박은정·천현주·함정욱·김은애·황지영·박수미·박의혁·모현주씨 등 제자들이 연주하며 김도연(바이올린), 박희현(소프라노), 조규철(바리톤)씨가 찬조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비탈리의 '사르느',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작품 35', '스승의 은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다.

"제자들이 저 몰래 음악회를 준비했다 봐요. 티켓을 가지고 왔을 때 공연 소식을 알았어요. 조용히 있고 싶는데 부끄럽고 속스럽죠.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구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피아노를 치려고 해요. 지난해까지도 피아노 듀오 무대에 섰구요."

정 교수는 내년에도 제자와 함께 듀오 무대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7148-12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자 인듯 청자 아닌 청자 같은...

강진아트홀 19일까지 김보미 초대전

강진아트홀은 오는 19일까지 청자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강진 출신 김보미씨를 초대해 전시를 연다.

강진청자 1호 김경진씨의 딸인 김씨는 자개와 옷칠을 더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청자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자를 현대적 감성과 쓰임에 어울리도록 재해석한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김씨의 작품은 매병이나 주병 같은 전통적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특히 '진사유'(辰砂釉)를 사용하거나 청자 겉면에 자개와 옷칠을 얹어 상감 처리하는 기법 등은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방식이다.

김씨는 전남대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특상(2011),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디자인부문 최우수상(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금상



'커피메이커'
(2014) 등을 수상했다. 또 홍콩차이나어소싱,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등에서 열린 공예 작품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의 061-430-397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4 문화의 달

이웃과 함께하기

푸른길·대인시장·동명동 페스티벌
양림동 전국청년문화기획자 대회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장기자랑, 베틀시장, 경매 등이 열리며 음식·문화 등 각 국가의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광주 곳곳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17일(오후2시~밤9시), 18일(오후2시~6시) 5-18민주 광장에서 아트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되는 '광장 페스티벌'이 열리며 17~18일에는 '대인예술시장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또 거리 아트마켓, 연극 상연, 퍼포먼스, 백스테이지 파티 등으로 구성된 '동명동 골목길 페스티벌', 푸른길 작은 도서관 일대에서 10명의 미디어 아트 작가 작품과 함께 아트마켓, 미디어 포토존 등을 운영하는 '푸른길, 미디어 아트' 등이 펼쳐진다.

그 밖에 광주 지역의 문화기획자 95명과 전국의 문화 기획자 95명이 준비한 '전국청년문화기획자 대회'가 양림동과 청춘 아고라 등 광주 지역 문화 공간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할 기획자들은 지난 7월부터 3차례 예비포럼을 통해 문화기획자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행사를 위해 광주시는 '2014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정동채 전 문화체육부 장관)를 꾸리고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재단 등 문화 관련 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행사 컨셉 등을 정했다. 또 박선정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젝트 총감독, 연극인 이담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디렉터를 맡아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www.2014moc.com. 문의 062-457-199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메세나·재원조성 전문가 강연

전남문화재단 오늘 장진민 교수·박현준씨 초청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아 메세나와 문화예술 재원 조성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2일 오후 2시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 주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재원조성 전략'이다.

첫 번째 강연은 박현준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차장이 '예술활동과

기업지원'이란 주제로 메세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 기부 현황 및 기업 후원 사례를 소개한다. 또 이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성도GL-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예술과 기업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는 결연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예술의 상생, 기업의 육성, 성공적인 협찬 제안법 등을 알아본다.

두 번째 강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컨설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모금 컨설턴트 등을 진행한 장진민 한남대 겸임교수가 '문화예술분야 재원조성의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재원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모금과 기부에 대해 소개한다.

문의 061-280-58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